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중재역할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여자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애착양식을 분류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역사도 함께 측정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안정된, 회피적 및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내에서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희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확인하는 동시에 애착양식에 따라 3인의 애착인물이 각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도 함께 검토되었다. 경로분석 결과, 세가지 애착양식 모두에서 애착→자아상→자아존중감→희망의 경로가 확인됨으로써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3인의 애착인물들은 개인의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나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핵심어: 애착 · 희망 · 중재변인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Bowlby의 애착모델은 성장한 이후의 개인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인식되는 추세에 있다. 그 증거로서 최근의 애착연구들은 애착이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유용한 예언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들면 청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

녕(Paterson, 등, 1995; McCormick & Kennedy, 1994; Raja 등, 1992; 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등, 1983), 분리-개별화 및 적응(Rice 등, 1995), 직업생애발달(Blustein & Prezioso, 1995) 등에 관한 연구와 함께 청년후기나 성인기의 낭만적 사랑(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결혼생

활 및 데이트 파트너의 관계(Kirkpatrick & Davis, 1944; Collins & Read, 1990), 정서조절(Kobak 등, 1993; Kobak & Sceery, 1988) 그리고 개인적 죽음의 공포(Mikulincer 등, 1990)에 관한 연구까지 애착모델이 적용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성장한 이후의 애착연구들은 영아기의 애착연구와는 상이하게 Bowlby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기초한다. 내적 작동모델이란 영아가 양육자의 반응성과 접근가능성을 바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형성한 정신적 표상으로 전생애 동안 애착이 지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중심적 개념이다. Bowlby(1969)에 의하면,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재조직되어 후속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신뢰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기초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 결과로 그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양육자와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할 수 밖에 없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타인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장한 이후의 애착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애착점수는 현재의

부모나 동년배 혹은 파트너에 대한 애착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애착점수가 아니라 애착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형성과정으로 설명한 Hazan과 Shaver(1987)는, Bowlby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을 기초로, 성장한 이후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양식도 영아기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양식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Ainsworth 등(1978)이 분류한 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은 각기 질적으로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기대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착양식의 계속성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생애동안 중요한 환경적 변화는 개인이 갖는 애착양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아니라(Kobak & Hazan, 1991) 성인기의 애착은 양육자에 대한 애착양식보다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장휘숙, 1997b; Griffin & Bartholomew, 1994), 영아기와 성인기의 애착양식이 반드시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적 작동모델에서의 변화는 타인과 깊은 정서적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Kobak & Hazan, 1991),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는 중고등학교 시기동안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영향력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들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애착척도인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정도를 점수화하였다. IPPA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장휘숙, 1997a; Paterson 등, 1995; Armsden과 Greenberg, 1987). 이 연구들의 기본가정은 내적 작동모델의 관점에서 애착체계를 논의할 때,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나 조직화된 기대에 해당함으로써 개인의 애착체계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나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대학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연령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동년배에 대한 애착으로 애착대상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12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PPA의 기초가 된 IAA(Inventory of Adolescent Attachments)를 개발하여 연구한 Greenberg 등(1983)은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인생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인생만족을 위해 모두 중요하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인생만족을 위한 더 중요한 예언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IAA를 확장하여 IPPA를 개발한 Armsden과 Greenberg (1987)는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 모두가 자아존중감이나 인생만

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의미있는 예언변인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Greenberg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대학생(16-20세)들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그들의 가족과 더 빈번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며 동년배와도 높은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대학연령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Greenberg 등이나 Armsden과 Greenberg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 문항으로 한데 묶어 애착을 측정하고 단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정도와 비교하는 데 만족하였으나 애착대상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다(Main & Weston, 1981; Lamb, 1977). 현재까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중 어느 편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Hoffman 등, 1988; Burke & Weir, 1978)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Gecas & Schwalbe, 1986)도 있다.

그러나 13세부터 19세까지의 뉴질랜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Paterson 등(1995)은 Armsden과 Greenberg가 개발한 IPPA를 사용하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애착질문지(각 25문항씩)를 구성하고 동년배문항은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애착과 자아존

중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이하게,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뿐 자아존중감과 상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을 표집한 장휘숙(1997a)은 Paterson 등(1995)과 동일하게 어머니 문항과 아버지 문항 그리고 동년배 문항을 구별하여 애착점수를 산출하고 청년기동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것이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연구하였다. Paterson 등의 연구와는 상이하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 모두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나 그들이 주는 영향의 양상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친구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친구에 대한 애착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어 Armsden과 Greenberg(198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IPPA를 사용한 연구외에도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설명하는 문장을 주고 그 중에서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하게 하는 Hazan과 Shaver의 범주척도나 그

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정도를 측정한 결과들도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 모두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McCormick과 Kennedy, 1994). 동시에 데이트하는 커플 사이의 관계나 성인의 낭만적 관계에서도 애착양식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와 함께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 Roberts 등(1996)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불안정한 애착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가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애착양식은 우울증을 포함하여 정서적 피로움과 연합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Armsden 등, 1990; Kobak & Sceery, 1988)과 동일한 맥락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애착과 심리적 장애 사이의 연결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한 애착이 심리적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애착은 자신과 중요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으로 구성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하고 그것이 역기능적 신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도하며 이것이 다시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피로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영아기의 애착역사를 바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기대나 표상에 해당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할 것이므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 작동모델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

능감 혹은 자아상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Roberts 등은 불안정한 애착에 의해 야기된 부적응적 증상의 발달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안정된 애착은 적응적인 개인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며 그것은 적응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상과 같은 중재변인을 경유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우울증과 유사하게 개인이 갖는 희망도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상의 중재역할에 의해 애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희망이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소망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인의 지각에 해당한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 유일하게 남게 된 것이 희망이라는 신화만 보더라도, 희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희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근심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므로 성장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희망척도를 개발한 Snyder 등(1991)은 물론 희망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연구한 Babyak 등(1993)은 희망이란 단일차원적인 구성개념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나 결정력(agency 요인)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세울 수 있는 능력(pathway 요인)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이차원적 구성개념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희망척도를 구성하는 의지요인과 방법요인은 목표와 관련된 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이나 그렇

다고 해서 정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서는 목표관련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결과나 후유증으로 인식된다. 연구자들은 희망이란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경과나 상황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Snyder 등의 희망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Gibb(1990)에 의하면, 희망은 자아존중감(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과 $.58(p<.005)$ 의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고 절망과는 $-.51(p<.005)$ 그리고 Beck의 우울척도와는 $-.42(p<.005)$ 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희망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희망과 우울이나 절망과의 관계에 대한 Gibb의 연구결과와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고 안정된 애착은 심리적 장애와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들(Hammen 등, 1995; Mikulincer 등, 1993; Kobak & Sceery, 1988)을 함께 고려할 때, 애착과 희망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Roberts 등의 연구에서 처럼, 애착과 희망이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보다는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상의 중재역할에 의해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자아존중감과 자아상은 모두 자아의 측면들이기는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단일차원적인 평가적 구성개념이라면(Rosenberg, 1979),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여러 측면의 특성을 포함하는 중다차원적인 구성개념에 해당함으로(Offer & Howard, 1972; Wylie, 1974) 논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때, 자기의 모습인 자아상이 먼저 형성될 것이고 뒤이어 자신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다회귀모델에서 자아상이 자아존중감보다 선행변인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Bowlby의 가정대로, 상이한 내적 작동 모델은 개인의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Hazan과 Shaver의 애착의 3범주 척도에 의해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구분하고 각 애착양식 내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어떤 경로를 거쳐 희망에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경로분석을 통하여 세 가지 애착양식에 따라 애착→자아상→자아존중감→희망의 경로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 소위 중재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3인의 애착인물 중 누가 중재변인과 결과변인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동년배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애착양식과 애착역사의 선택비율, 애착역사와 IPPA의 관계 그리고 세 개의 애착양식에 따른 각 요인들의 차이도 함께 검토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대전시에 소재한 2개의 인문계 여자와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부모 중 어느 한편이 부재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학생은 931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6.2($SD=0.68$)세였다. 검사는 각 학교마다 동일한 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 실시시간은 한 번에 약 30-4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척도

애착척도

① Hazan과 Shaver의 애착척도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장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척도에 의해 안정된, 회피적 및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집단이 구분될 수 있다.

② Armsden과 Greenberg의 IPPA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원래의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Paterson 등(1995)과 같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 각각에 대해 25문항씩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고 5점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원래의 IPPA는 신뢰, 의사소통 및 소외의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결과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하위척도를 무시하고 전체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0, 아버지문항 .92 그리고 동년배문항은 .89를 나타내었다.

에착역사의 측정

Hazan과 Shaver(1986)의 부모양육에 대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동기동안의 어머니 및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따뜻한/반응적, 냉담한/거부적 그리고 양가적/일관성 없는의 세가지 양육유형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잘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하게 하였다.

자아상 검사

Patton 과 Noller(1994)의 연구에서 확인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OSIQ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의 수정판이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10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느낌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원래의 검사는 1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5개 하위요인 중 심리적 자아상, 사회적 자아상, 가족 자아상 그리고 대처 자아상 하위요인을 선택하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34개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 6점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자아상 .87, 사회적 자아상 .77, 가족 자아상 .72, 그리고 대처 자아상 .71이며 전체 자아상 검사의 Cronbach α 계수는 .88이었다.

자아존중감 검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10개 문항을 포함하는 이 검사는 전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80이었다.

2.2.5희망척도

Snyder 등(1991)에 의해 제작된 희망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검사는 목표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요인(agency 요인) 문항과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요인(pathway 요인) 문항 및 방해파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모두 4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의지요인과 방법요인은 서로 상이한 요인들이면서도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에서 의지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72 그리고 방법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76이었으며 희망척도 전체의 Cronbach α 계수는 .78이었다.

결과 및 해석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먼저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에착양식과 에착역사의 선택비율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세 가지 애착양식을 선택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안정된 애착양식을 선택한 비율은 50.97%(473명), 회피적 애

착양식 24.14%(224명),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선택한 비율은 24.89%(231명)였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 결과(안정된 56%, 회피적 25%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19%)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1977b)의 결과(안정된 60%, 회피적 28.29%, 불안한/양가적 11.71%)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더 낮은 안정된 애착양식 비율과 더 높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유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애착역사에 대한 응답비율은 어머니를 따뜻한/반응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58.41%(542명), 냉담한/거부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56%(33명) 그리고 양가적/일관성 없는으로 응답한 학생이

38.04%(353명)였다. 대조적으로 아버지에게 대해 응답한 비율은 각각 43.97%(408명), 10.02%(93명) 그리고 46.01%(428명)로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 대해 따뜻한/반응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따뜻한/반응적으로 응답된 어머니들의 비율이 아버지들의 비율보다 더 높았을 뿐아니라 냉담한/거부적 및 양가적/일관성없는으로 응답한 비율은 어머니들이 더 낮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바람직하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애착역사에 따른 IPPA 점수에서의 차이검증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역사에 따라 IPPA로 측정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의 차이를

<표1> 애착역사에 따른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 애착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어머니 애착역사				아버지 애착역사			
	따뜻한/ 반응적 1집단	냉담한/ 거부적 2집단	양가적/ 일관성없 는 3집단	F값	따뜻한/ 반응적 1집단	냉담한/ 거부적 2집단	양가적/ 일관성없 는 3집단	F값
	M(SD)	M(SD)	M(SD)		M(SD)	M(SD)	M(SD)	
어머니 애착점수	3.54 (0.50)	2.49 (0.46)	3.03 (0.54)	151.39***	3.40 (0.57)	3.02 (0.63)	3.28 (0.57)	17.27***
아버지 애착점수	3.09 (0.65)	2.49 (0.54)	2.86 (0.62)	21.78***	3.29 (0.58)	2.21 (0.56)	2.85 (0.57)	152.87***
동년배 애착점수	3.58 (0.51)	3.32 (0.70)	3.46 (0.49)	8.84***	3.57 (0.51)	3.46 (0.52)	3.50 (0.51)	3.33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함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과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유형에 따라 IPPA로 측정된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현재의 애착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검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역사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점수는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및 2집단과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는 1집단과 2집단 및 1집단과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역사의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역사와 동일하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점수에서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그리고 2집단과 3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는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역사에 따른 집단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따뜻한/반응적 애착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가장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낸 반면, 냉담한/거부적 애착역사를 갖는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 양자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역사에서만 따뜻한/반응적 애착역사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역사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동년배 사귀에 영향을 주나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들의 동년배 사귀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Hazan과 Shaver가 분류한 애착양식에 따른 각 요인들의 차이검증

Hazan과 Shaver가 분류한 애착의 3 범주에 따라 IPPA로 측정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자아상과 자아상의 하위요인들, 자아존중감 및 희망 척도와 그것의 하위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2>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에 의하면,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으로 분류된 여자 청소년들은 IPPA 점수는 물론 자아상 점수, 자아존중감 점수 그리고 희망 점수에서 일관성있게 유의한 집단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증 결과(Bonferroni 검증), 사회적 자아상에서만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및 2집단과 3집단간 사이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자아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1집단과 2집단 및 1집단과 3집단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은 회피적 애착양식이나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IPPA로 측정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는 물론 자아상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하는 전체점수와 자아존

중감 및 희망척도의 전체점수 및 하위 요인들의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가장 바람직한 애착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특히 회피적 애착양식 집단은 사회적 자아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전형적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피적 애착양식 집단과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집단 양자는 자아상검사 중 사회적 자아상을 제외하고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이 연구에서 실시된 검사들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에 앞서 Hazan과 Shaver의 범주 척도에 따라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들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IPPA로 측정된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와 자아상 전체점수, 자아존중감 점수 및 희망척도 전체점수 사이의 상호상관을 계산하였다(<표3> 참

<표 2> 애착의 3범주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표

	안정된 1집단	회피적 2집단	불안한 /양가적 3집단	F값
	M(SD)	M(SD)	M(SD)	
IPPA				
어머니애착	3.43(0.54)	3.17(0.64)	3.19(0.58)	21.31***
아버지애착	3.09(0.65)	2.88(0.69)	2.85(0.69)	13.25***
동년배애착	3.70(0.44)	3.32(0.51)	3.37(0.52)	63.33***
자아상	4.02(0.50)	3.48(0.58)	3.50(0.54)	113.76***
심리적자아상	3.77(0.77)	3.16(0.77)	3.00(0.74)	98.11***
사회적자아상	4.76(0.76)	3.80(0.94)	4.09(0.99)	107.29***
가족자아상	4.00(0.76)	3.75(0.90)	3.73(0.80)	12.58***
대처자아상	3.55(0.74)	3.21(0.79)	3.19(0.74)	25.08***
자아존중감	2.59(0.43)	2.32(0.48)	2.30(0.48)	43.09***
희망	2.61(0.44)	2.46(0.45)	2.41(0.45)	18.22***
의지요인	2.60(0.52)	2.46(0.56)	2.40(0.56)	11.42***
방법요인	2.61(0.49)	2.46(0.48)	2.41(0.46)	16.95***

조).

<표3>은 세 개의 애착양식 집단 모두 IPPA로 측정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년배에 대한 애착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안정된 집단과 회피적 집단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안정된 집단, 회피적 집단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집단 모두에서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희망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상관계수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안정된 애착집단과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와 비교하여 자아상, 자아존중감 및 희망과 일관성있게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피적 애착 집단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가 어

<표 3> 각 요인별 상호상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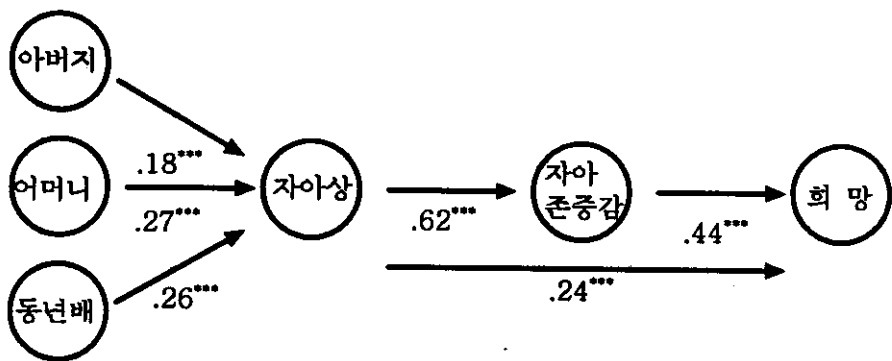
		IPPA의 어머니 애착점수	IPPA의 아버지 애착점수	IPPA의 동년배 애착점수	자아상	자아존중 감
IPPA의 아버지 애착점수	안정된	.49***				
	회피적	.56***				
	불안한/ 양가적	.52***				
IPPA의 동년배 애착점수	안정된	.26***	.23***			
	회피적	.18**	.21**			
	불안한/ 양가적	.11	.04			
자아상	안정된	.41***	.36***	.36***		
	회피적	.50***	.56***	.29***		
	불안한/ 양가적	.47***	.36***	.34***		
자아존중감	안정된	.33***	.24***	.21***	.63***	
	회피적	.35***	.38***	.16*	.66***	
	불안한/ 양가적	.39***	.20***	.21***	.63***	
희망	안정된	.27***	.21***	.21***	.57***	.60***
	회피적	.33***	.23***	.14*	.61***	.64***
	불안한/ 양가적	.32***	.13*	.23***	.52***	.57***

머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보다 자아상 및 자아존중감과 더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는 반면,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에서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보다 희망과 더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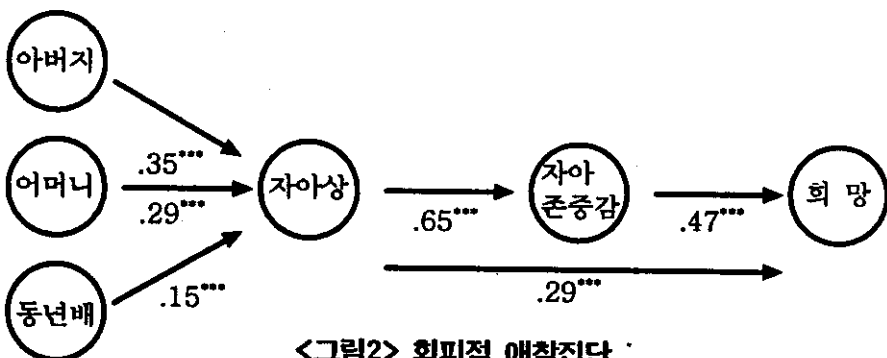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경로계수로 사용하여 애착, 자아상, 자아존중감 그리고 희망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이 실시되었다.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안정된 애착집단, 회피적 애착집단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 각각에서 경로분석이 실시되었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희망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경로를 제시하면 <그림1>, <그림2> 및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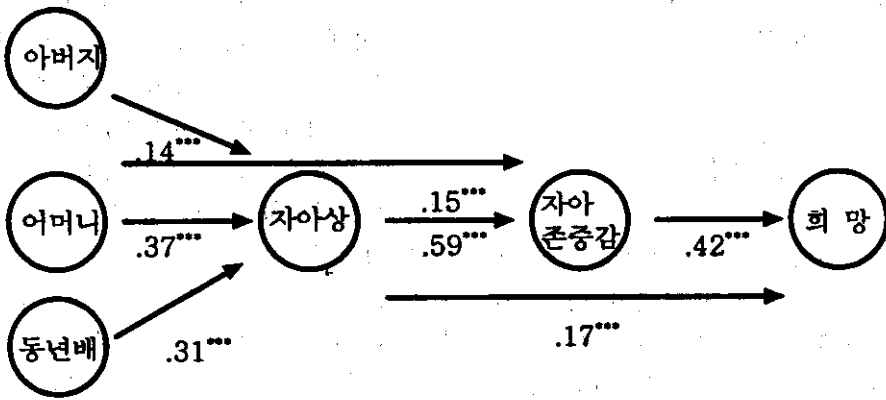
<그림1>, <그림2> 그리고 <그림3>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집단, 회피적 애착집단 및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 모두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거의 동일한 경로를 거쳐 희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세 개의 애착



<그림1> 안정된 애착집단



<그림2> 회피적 애착집단



<그림3>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

모두에서 자아상에서 희망으로 직접가는 경로의 계수값과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아존중감으로 직접가는 경로의 계수값이 유의하기는 하지만, 애착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희망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값이 일관성있게 더 커, 애착→자아상→자아존중감→희망의 경로가 확인될 수 있었다. 연구자의 가정대로, 자아상은 중다차원적인 자신의 전체적 모습인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기 때문에 경로상에서 자아상이 자아존중감을 선행하며 이 두 개의 변인은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중재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림 1,2,3>을 통하여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있는 결과는 안정된 애착집단, 회피적 애착집단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에서 3인의 애착인물이 나타내는 상대적인 영향이었다. 경로상의 계수값을 비교해보면, 안정된 집단은 어머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를 주는 반면, 회피적 집단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자아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조적으로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비교하여 어머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자아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2,3>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모두 자아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향 정도는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회피적 애착집단에서보다 안정된 애착집단과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에서 자아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회피적 애착집단은 자아상에 미치는 동년배 애착의 영향이 가장 적은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회피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들의 자아상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이며 동년배는 3인의 애착

인물 중 청소년의 자아상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인물이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여자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이 희망과 관련되어 있고 이 두 변인의 관계는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애착척도로서 Hazan과 Shaver(1987)가 사용한 3범주 척도를 사용하는 동시에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IPPA를 사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점수화하고 애착역사도 함께 측정하였다. 3범주 척도를 사용하여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구분하고 각 애착양식내에서 IPPA에 의해 측정된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희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확인하는 동시에 애착양식에 따라 3인의 애착인물이 각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도 함께 검토되었다. 경로분석결과,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은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 소위 중재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Hazan과 Shaver의 애착척도에 의해 분류된 안정된, 회피적 및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선택한 비율은 선행연구들(장휘숙, 1977b; Collins & Read, 1990; Hazan과 Shaver, 1987; Campos 등, 1983)과 비교하여 안정된 애착양식의 비율이 조금 더 낮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의 비율이 다소 더 높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

육방식을 묻는 애착역사에 관한 질문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1977b)의 결과와 비교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 양자에 대해 따뜻한/반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더 낮고 냉담한/거부적 및 양가적/일관성없는으로 응답한 비율은 더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차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Campos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여자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변화에 기인된 갈등을 경험하기 쉬워 애착양식은 물론 애착역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대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시기적 특성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형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할 뿐아니라 아동기동안 부모가 사용한 양육방식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회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의 선택비율이 선행연구들보다 더 높다는 것은 청년기의 특징적 불안과 그들의 주변적 지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 애착역사에서 더 많이 부정적으로 기억되고 있을 뿐아니라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아직도 가정내에서 권위적 인물로 지각되고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데 기인된 결과일 것이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역사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 사이의 관계를 제외하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해 따뜻한/반응적 애착역사를 지니고 있는 소녀들이 IPPA로 측정한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애착역사를 통해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그것이 현재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Bowlby(1969)의 가정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착역사를 묻는 질문 자체가 범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역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범주적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한 거짓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함을 하나의 개인적 특성으로 하여 함께 측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장휘숙, 1997a; Feeney & Noller, 1990)과 일치되게 안정된 애착양식을 갖는 학생들이 회피적 혹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학생들보다 IPPA로 측정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안정된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가장 바람직한 자아상과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 및 희망을 지니고 있어 안정된 애착의 중요성이 입증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된 결과로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한다는 사실은 애착의 불안정성과 우울증의 관계가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중재된다는 Roberts 등(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불안정한 애착과는 대조적으로 안정된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모습과 평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것이며 그것들은 다시 바람직한 후속적 발달을 야기시킬 것이다. 더욱이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 모두에서 거의 동일한 인과적 경로가 발견됨으로써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이 애착과 희망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변인이라는 사실이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인간발달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희망에 영향을 주는 애착→자아상→자아존중감→희망의 경로는 인간 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점성원칙의 지배를 받는(Erikson, 1968) 다차원적인 개인의 발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법보다는 다양한 중재변인과 조절변인들이 고려된 접근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된다는 Bowlby의 가정을 바탕으로 할 때, Roberts 등의 연구는 물론 이 연구의 결과는 인생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성장한 이후에도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중재변인을 통하여 개인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여진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동년배에 대한 애착보다 자아존중감과 인생만족

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Greenberg 등 (1983)이나 Armsden과 Greenberg (1987)와는 대조적으로,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의 영향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3인의 애착인물은 모두 개인의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나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정된 애착양식 집단과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자아상에 더 큰 영향을 준 반면, 회피적 집단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동년배에 대한 애착보다 자아상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회피적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아상에 미치는 동년배 애착의 영향이 회피적 애착집단에서 가장 적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자아상에 미치는 동년배 애착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진 불안한/양가적 애착집단이 가장 위험한 청소년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insworth 등 (1978)에 의하면,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영아들은 어머니와 분리후 재결합되었을 때 부재한 어머니를 찾고 심하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온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발로 차거나 때리기까지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성장한 후의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를 원할 뿐 아니라(Hazan & Shaver, 1987) 질투심이

많고 강박관념적으로 사랑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Feeney & Noller, 1990; Simpson, 1990).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야기된 그들의 근원적인 불안 때문에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경향성을 갖게 됨으로써 동년배의 부정적이거나 일탈적 행동에 가장 영향받기 쉬운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정환경적 특성이 함께 연구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청년기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와 동년배의 상대적 영향은 청소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년배의 일탈적 행동에 영향받기 쉬운 청소년들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 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자고등학교 청소년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애착양식에서 유의한 성차나 연령차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IPPA로 측정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는 연령차와 함께 성차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장휘숙, 1997a; Paterson 등, 1994; Raja 등, 1992; Armsden & Greenberg, 1987), 동일한 연령의 남자 청소년들은 물론 더 어린 연령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과 같은 더 나이 많은 청년들에서도 중재변인으로서의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은 더욱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장휘숙(1977a).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 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학회지 게재예정.*
- 장휘숙(1977b).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427-454.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683-697.
- Babyak, M., Snyder, C. R., & Yoshinobu, L. (199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ope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 154-169.
- Blustein, D. L., & Prezioso, M. S.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3, 416-43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Basic Books, New York.
- Burke, R. J., & Weir, T. (1978). Benefits to Adolescents of Help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Psychol. Rep.* 42, 1175-1184.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Psychobiology*. New York: Wiley.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4, 644-66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2, 281-291.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 Marriage Family*, 48, 37-46.
- Gibb, J. (1990). The Hope Scale revisited: Further Valida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Hope Mo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2, No. 5, 373-386.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430-445.
- Hammen, C. L., Burge, D., Daley, S. E., Davila, J., Paley, B., & Rudolph, K. D.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36-44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3, 511-524.
- Hoffman, M. A., Usstpiz, V., & Levy-Shiff, R. (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307-316.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6, 861-869.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3, 502-512.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6, 861-86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 Fleming,

- W. S.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Lamb, M. E. (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181.
- Main, M., & Weston, D. R. (1981).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Form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No. 1, 1-18.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Mikulincer, M., & Erev, I. (1991). Attachment Styles and Structure of Romantic Lov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73-291.
- Mikulincer, M., Florian, V., & Tolmacz, R. (1990). Attachment Styles and Fear of Personal Death: A Case Study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2, 273-280.
- Offer, D., & Howard, K. I. (1972).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Arch. Gen. Psychiatr.* 27, 529-537.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No. 5, 579-600.
- Paterson, J. E.,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4, No. 3, 365-376.
- Patton, W. & Noller, P. (1994).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No. 1.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1, No. 4.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3, 463-474.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10-320.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 No. 5, 971-980.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5, 971-980.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4, 570-585.
- Wylie, R. C. (1974). *The Self-Concept: A Review of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Measuring Instruments* (Vol. 1, rev. ed).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인간발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98. Vol. 5, No. 1.

The mediating roles of self-image and self-esteem in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hope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o investigate whether the self-image and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hope, attachment styles and attachment history were measured along with the attachment scores about mother, father and peers. Within three attachment styles, the pathes which the attachment to mother, father and peer influence to the hope were expored. The path analysis confirmed the self-image and self-esteem are the mediating variables i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hope. Also it was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figures on the self-image and self-esteem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ttachment styles.

Key words: attachment • hope • mediating variable